
'18년 12월 아랍에미리트(UAE) 주요 경제 동향

2019. 1. 6

1. 경제일반	/ p.1
2. 산업	/ p.5
3. 자원·에너지	/ p.6
4. 건설·플랜트	/ p.8
5. 농업·식품	/ p.13

주 아랍에미리트(UAE) 대사관

1. 경제일반

□ **[경기 동향 지수]** Emirates NBD(두바이 최대은행)의 11월 구매자관리지수 (PMI)와 두바이 경기 지수(Dubai Economy Tracker Index) 모두 상승

○ 11월 구매자관리지수(PMI)*가 55.8로서 전월(55.0) 보다 0.8 상승

- 18년 1월-11월까지 평균 PMI는 55.7로서 17년 1월-11월까지의 평균 PMI(55.9)와 거의 비슷한 바, 18년 UAE 비석유부문이 17년과 유사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
* **통상 구매자관리지수(Purchasing Manager's Index)**는 제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'**제조업 분야 경기 동향 지수**'이나, **Emirates NBD의 구매자관리지수**는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소매업 등 400개 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'**비석유부문 경기 동향 지수**'임 (PMI가 통상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, 50미만이면 수축을 의미)

<UAE의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>

18.2월	18.3월	18.4월	18.5월	18.6월	18.7월	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
55.1	54.8	55.1	56.5	57.1	55.8	55.0	55.3	55.0	55.8

- 11월 판매 가격(selling price)이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(10월 48.7 → 11월 47.0), 투입 비용(input cost)은 18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

→ 기업들이 비용상승 하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도전적인 환경

- 그러나, 이러한 가파른 판매가격 할인과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생산(output)과 신규 주문(new order)은 전월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

· 탄탄한 수출 수요 또한 신규 주문 상승에 기여한 바, 신규 수출 주문이 지난 4개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, 일부 기업들은 특히 다른 GCC 국가들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했다고 언급하였음

- 11월 고용(Employment)은 50.6으로서 전월(50.1)보다 약간 상승했는데, 조사대상 기업의 94.2%가 고용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, 3.1%의 기업은 고용을 늘렸다고 답변하였음

- 향후 사업 전망(business optimism)은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바, 조사대상 기업의 75%가 향후 1년간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

- 11월 두바이 월간 경기지수*가 55.3으로서 전월(52.5) 대비 2.8 상승

- * Dubai Economy Tracker Index, 동 지수가 50을 넘으면 상승세를 의미

- 도소매업은 55.4로서 전월(53.7) 보다 1.7 상승

- 건설은 57.5으로서 전월(55.5) 보다 2.0 상승

- 관광분야는 52.8로서 전월(49.6) 보다 3.2 상승

□ **[통화 및 은행 부문]** 주재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18년 11월 주재국 통화지표를 보면, M1(현금 + 요구불 예금)은 0.5% 증가, M2(M1 + 저축성 예금 + 거주자 외화예금)는 1.8% 증가, M3(M2 + 정부 예금)는 1.8% 증가

- M3 중 정부예금(정부의 중앙은행 예금과 일반은행 예금 합계)은 3,051억 디르함으로서 전월대비 49억 디르함 증가

〈정부 예금 추이(단위 : 억 디르함)〉

15.12월	16.12월	17.12월	18.6월	18.7월	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
1,560	1,859	2,109	2,535	2,537	2,780	2,887	3,002	3,051

- 18년 11월 은행 부문의 총신용(총대출)은 전월 대비 0.4% 증가하였고, 총예금은 1.0% 증가

- 은행 총신용(총대출) 중 민간부문 신용(대출)은 0.03% 감소하였고, 은행 총예금 중 민간부문 예금은 1.0% 증가하였음

□ **[소비자물가 동향]** 주재국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8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.34% 상승

○ 18년 11월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, 식품·음료 1.34%, 의류·신발 18.42%, 담배 8.27%, 교통 8.80%, 통신 3.54%, 숙박·식당 6.87%, 교육 2.46%, 여가·문화 8.28%, 가구·가정용품 3.5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- 주거 및 전기·수도요금(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가중치 34.1%)은 - 5.33%, 의료 -0.16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○ 18년 부가가치세 시행(세율 5%)으로 소비자물가가 18년 1월 및 2월에는 4% 넘게 상승하였고 3월부터는 3%대를 유지하였으나, 최근 10월 및 11월에는 주거비 하락 등의 영향으로 1%대를 기록

* 주거 및 전기·수도요금 물가 : 18.9월 -4.39%, 10월 -5.18%, 11월 -5.33%

〈18년 월별 소비자 물가 추이(전년 동월 대비)〉

18.1월	18.2월	18.3월	18.4월	18.5월	18.6월	18.7월	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
4.76%	4.45%	3.36%	3.53%	3.48%	3.29%	3.78%	3.86%	3.10%	1.62%	1.34%

□ **[주재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]** 12.19일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0.25%(2.0~2.25% → 2.25~2.5%) 인상하자, UAE 중앙은행도 Repo Rate*를 0.25%(2.5% → 2.75%) 인상

* UA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단기 유동성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

○ 달러 페그제 (1달러 = 3.67 디르함)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주재국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

- 미국 FRB는 17년에는 6월과 12월, 18년에는 3월, 6월, 9월, 12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, 주재국 중앙은행도 이와 동일한 폭으로 Repo Rate을 인상하였음

- **[2019년 연방정부 예산]** 주재국 연방평의회(Federal National Council)은 지난 9월 연방내각이 승인한 603억 디르함 규모의 2019년 연방정부 예산(federal budget)을 그대로 통과시킴
 - 19년 연방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17.3% 증가한 것이며, 이 중 사회발전 프로그램이 255억 디르함(전체 예산의 42.3%), 교육은 102.5억 디르함(전체 예산의 17%), 보건이 44억 디르함(전체 예산의 7.3%)

- **[2019년 두바이 예산]** 두바이 정부는 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0.35% 증가한 568억 디르함으로 책정
 - * 18년 두바이 예산은 566억 디르함으로서 전년 대비 19.5% 증가했었는데, 19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.35%에 그침
 - Gulf News紙에 따르면, 인프라 프로젝트에 전체 예산의 16%(92억 디르함)가 투입되며, 보건·교육·주거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3%가 투입된다고 함

- **[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]** 12.1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9개 출국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실시
 - 1단계로 지난 11.18일부터 아부다비공항, 두바이공항, 샤르자공항 등 3개 출국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
 -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동 1단계에서 일일 약 93만 디르함이 환급되었으며, 일일 처리 건수가 3,800여건에 달했다고 함
 - 이번 2단계에서는 알아인공항, 알막툼공항, 라스알카이마공항, 자에드 항구, 라시드항구 등 9개 장소가 추가됨
(1단계와 2단계를 합하여 총 12개 장소에서 환급 가능)
 - 동 2단계를 추가 실시함에 따라 일일 환급 처리 건수가 5,0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UAE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소매판매점이 7,181개에 이른다고 함

2. 산업동향

□ (중국의 항만진출) 아부다비에 중국 COSCO사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

- 중국 Cosco해운은 12.10일 아부다비 칼리파 항구에 3억달러를 투입한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여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계획을 뒷받침하게 됨
- 이 터미널은 중동 최대의 컨테이너 화물기지로서 향후 35년간 Cosco사가 운영하게 되며, 연간 250만 TEU를 처리하고 2만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
- 중국은 UAE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2017년 양국의 무역은 15% 성장하여 530억 달러를 기록함
 - UAE는 중국의 대 아랍지역 수출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음

□ (부패방지) UAE, 뇌물 등 반부패 법령 강화

- UAE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뇌물에 대한 반부패 처벌을 강화함
- 뇌물 처벌대상이 현행 국내 행위에서 외국에서의 행위로도 확대되고, 공기업, 민간기업, 국제기구가 모두 포함
 - 범죄자나 피해자가 UAE국민일 경우와 UAE의 사업체가 관련될 경우 국내외에 관계없이 모두 반부패법이 적용됨

□ (창업지원) UAE 혁신펀드, 핵심분야의 창업 지원

- UAE정부가 지원하는 Mohammed Bin Rashid Innovation Fund는 UAE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제1차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세계 25개 창업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임
 - 주요 관심분야는 우주, 수자원, 기술, 교육, 보건, 재생에너지 등임

- 동 프로그램은 2.7일까지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4.7일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계획임
- 현재 UAE에서는 두 곳의 금융허브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이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음

3. 자원 · 에너지 동향

□ (CO2 감축) 아부다비석유공사, 탄소포집 확대로 CO2 배출 저감 계획

- 아부다비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석유 생산량 증대에 활용하는 탄소포집 프로그램을 기존 한 개 광구에서 두 곳으로 확대할 계획임
- 이에 따라 기존에 유전 압력 증대에 천연가스를 활용하던 것을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게 되면서 천연가스를 발전용이나 산업용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됨
- 아부다비석유공사는 2009년 탄소포집 프로그램을 착수하여 이산화탄소를 석유 회수 증대를 위해 유전에 주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,
 - 2016년부터는 철강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8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Al Reyadah 주입설비를 가동하였는데, 2030년까지 연간 5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한다는 계획임

□ (UAE-일 가스협력) 아부다비와 일 Inpex, LNG 병커링 협력

- ADNOC 운송서비스사(L&S)는 일본 Inpex와 UAE 및 동남아시아 LNG 병커링 파트너쉽 협정에 서명함
- ADNOC L&S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의 병커링연료 환경요건 강화로 LNG 병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, Inpex와의 협력으로 세계 LNG 병커시장에서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자체 평가함

□ (석유산업) 아부다비석유공사, IBM과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

- 아부다비석유공사는 IBM과 함께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석유가스 생산을 통합하는데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함
- 동 시스템은 생산유정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거래를 추적하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보안성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, 이를 통해 시간과 노동을 절약함으로써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시범 프로그램으로는 아부다비석유석유공사의 자회사들 간에 모든 회계절차를 자동화하여 거래 물량과 금융 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임

□ (수력발전) 라스알카이마 지역에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

- UAE연방정부는 라스알카이마 산악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이 지역 에미리트정부와 논의중임
- 현재 두바이정부는 인근 하타 지역에 UAE 최초의 25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

4. 건설·플랜트 동향

□ 2018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실적

- 2018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321억불로 전년 동기(290억불) 대비 11% 증가한 규모
- (지역별) 아시아 162억불(전년대비 29.6% ↑), 중동 92억불(전년대비 36.9% ↓), 유럽 37억불, 아프리카 12억불, 태평양·북미 10억불, 중남미 7.3억불 순
- (공종별) 산업설비(플랜트) 184억불, 토목 72억불, 건축 54억불, 용역 8억불, 전기 3.6억불 순
- (국가별) UAE 53억불, 베트남 44억불, 러시아 31억불, 싱가포르 26억불, 사우디 24억불, 태국 20억불, 중국 13억불 순

□ 2018년 두바이 공사계약 규모 전년 대비 크게 감소

- MEED Projects에 의하면 12.17일 현재 두바이내 공사계약 규모는 238억불로 2017년 계약 규모 310억불 대비 약 22% 낮은 수준
- 이러한 감소는 두바이가 더 이상 과거처럼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업계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임
- 부문별로는 건설 144억불, 발전 64억불, 교통 15억불이며, 석유가스 부분은 다른 GCC 지역과 달리 1.7억불에 불과
- 발전 부문에서 최대 사업은 상하이전기의 38억불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이며, 두 번째 사업은 두바이 수전력청(DEWA)이 BOT 방식으로 발주한 쓰레기 발전 프로젝트로 6.8억불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

- 건설 부문에서는 Alec이 2020 엑스포 부지에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 전 시장을 만드는 3.5억불 공사가 가장 크며, 2019년에는 알막툼 국제공항 Concourse 1 및 서측 터미널을 조성하는 27억불 공사가 가장 큰 사업이 될 전망

□ GCC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의 지배력 확대 추세

- GCC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수주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
 - 사우디 라스 알 카이르의 킹 살만 해운단지 패키지 4, 5, 6 입찰에서 중국의 SEPCO가 33억불의 계약을 수주
 - 중국 기업과 중국 주도 컨소시엄이 정부와 은행 지원 하에 장기 지연되던 사우디 랜드브리지와 쿠웨이트 실크 시티 사업을 수행하게 됨
 -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이집트 모노레일, 고속열차 사업에 입찰하고, UAE 에티하드 레일 2단계 사업에도 입찰할 것임
- 이는 ① 중동 지역의 비용 효율 지향 추세가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며, ② 非중국 기업에게는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며, ③ 일대일로와 연계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중국 기업들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는 세 가지 측면을 뒷받침하는 것임
- MEED지는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독일 지멘스와 같이 중국 기업들과 동반 관계를 맺는 것을 제시함
 - 지멘스는 6월에 발전, 운송 분야 10개의 중국 EPC 업체와 계약 체결

□ 아부다비 메트로 및 경전철 관련 동향

- 아부다비 교통부(DOT)는 18년 말 종료되는 메트로, 경전철 자문 계약을 1년 연장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음

- 2012년에 미국의 에어컴과 파슨스, 독일의 DB International이 메트로 연구 및 사전설계 계약을 수주하고, 스페인의 톱사 및 세너가 경전철 자문계약을 수주하였고, 이들 계약은 18년 말에 만료될 예정
- DOT는 2020년까지 양 사업에 대한 발주를 하지 않고 주 공사 발주에 앞서 2013년에 접수된 사전설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메트로 및 경전철 프로젝트는 2009년에 발표된 아부다비의 680억불 규모 육상교통 종합계획의 일부에 해당
- 메트로는 자예드 스포츠시티~중심상업지역까지 18km, 경전철 블루는 마리나몰~림아일랜드 15km, 경전철 그린은 카라마~사디얏 13km 구간
- 주무 기관이 교통부에서 무사나다로 갔다가(2013) 도시교통부(2015), 교통부(2017)로 재이전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

□ 두바이 제벨 알리에 600 MW 규모 발전 및 담수 프로젝트 추진 전망

-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(EGA), 무바달라 및 두바이홀딩은 제벨 알리의 EGA 제련소에 발전 및 담수 플랜트 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
- 제련소의 효율을 높이고 천연 가스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
- 3개 기관은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JV를 구성할 것이며 EGA는 동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담수를 25년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

□ 두바이 투자청(ICD), 18년 상반기 순이익 소폭 감소

- 두바이 투자청은 2018년 상반기 총수입 310억불 및 순이익 27억불을 기록하여,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.4% 상승, 순이익은 3% 감소
- 총수입은 석유가스, 교통 부문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

- ICD는 부동산(버즈 칼리파, 두바이몰, 두바이무역센터), 재정(에미레이츠 NBD, 두바이 이슬라믹 은행), 교통(에미레이츠 항공, Dnata 및 두바이 항공기업), 환대(아틀란티스 리조트), 에너지 및 산업(ENOC), Ducab 및 에미레이츠 알루미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

□ 중국, 아부다비에 산업단지 확대 전망

- 아부다비항만공사 회장 술탄 알 자베르에 의하면 칼리파항 자유무역 지대 A 구역에 있는 중국 전용 단지가 12km²로 확대될 전망
- 해당 산업단지는 당초 2km² 면적에 에너지, 알루미늄, 바이오제약, 식품 제조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며
 - 2017년 7월 중국 장수 지역 5개 기업이 3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, 장수해외협력투자회사(JOCIC)가 주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부다비 항만공사와 50년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
□ 아부다비석유회사(ADNOC), 6억불 규모 LAB 프로젝트 FEED 계약자 선정

- ADNOC과 스페인 CEPSA는 스페인의 Tecnicas Reunidas(TR)와 총 공사비 6억불 규모의 LAB(Linear Alkyl Benzene) 프로젝트를 위한 FEED(Front-End Engineering and Design) 계약을 체결(계약금액 8백만불)
- 지난 9월 마감된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는 미국, 영국, 스페인, 호주 및 아국 총 6개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□ 두바이, 병원 PPP 입찰 예정

- 두바이 보건청(DHA)은 라쉬드 의료단지에 심장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입찰을 19년 4월 이전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
 - 해당 시설은 110~120개 병실 규모로 PPP 모델로 개발될 계획

- DHA는 18년 초 사업자 대상으로 관심을 촉구한 바 있으며, 19년 1월 사전 자격심사가 개시될 전망

- 현재까지 15개국 이상에서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□ UAE, 샤자(Sharjah)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관련 동향

- 장기 양허 조건으로 샤자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 컨설턴트 및 운영사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- MEED 보도에 의하면 동 프로젝트는 동 프로젝트는 요르단 암만의 Queen Alia 국제공항과 같이 PPP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

- 다만 현재까지 샤자 항공청(SAA)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한 그룹은 없는 상황

- SAA는 18년 초에 샤자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27백만불 상당 세 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
- 프랑스 ADPI가 자문 및 사업 총괄 계약, 현지업체 Core 설계사가 다중 시설 설계, 현지 수처리 업체인 Metito Overseas가 수처리계획 설계를 수주

□ 알막툼 공항 확장 프로젝트 구조물 공사 1월초 입찰 마감

- 두바이항공엔지니어링프로젝트(DAEP)는 Concourse 1 및 서측 터미널 건물 공사 입찰을 1월 6일에 마감할 계획

- 사업자들은 12월부터 입찰을 준비해왔으며, 동 입찰에 참가할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5. 농업·식품 동향

□ 식량안보를 위한 UAE 농업(12. 11, Wamda)

- 정부통계에 따르면, UAE는 식량의 국내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담수자원의 80%이상을 소비중이며, 이는 담수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물 소비량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됨
- UAE 알아인(AI Ain) 근처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 Pure Harvest社는 토양이 아닌 코코넛 용액으로 재배되고 있으며,
- 필요한 물의 양을 정확히 모니터링하며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
- UAE 수경농업은 물 사용량에서 일반농업보다 효율적이며 현재 UAE 농지의 평방 미터당 10-14 킬로그램의 식품이 생산되고 있지만, 이러한 시설재배를 통해서만 10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집약적 농업임

□ UAE, 정부차원의 국내생산 확대 지원(12.24, The National)

- UAE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의 일부가 현지에서 생산중이며,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가 급상승 중에 있음
- UAE 기후변화환경부(MOCCA)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농장에서 재배된 오이, 토마토, 고추 및 호박을 포함하여 수많은 농산물이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엔 유기농 제품도 포함돼 있음.
- UAE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 판매량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지만 Lulu, Carrefour, Union Co-op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2018년 한해 동안 약3,500만 디르함(약10억여원)의 계약이 체결되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됨.

- UAE 정부는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고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 농업생산의 가장 중요한 담수 공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
- 일부 농민들은 물 사용을 70%까지 줄이기 위해 토양이 필요 없는 수경재배를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현재 UAE에는 최소 200여개의 수경재배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